

구 미즈사와현청 기념관

이 건물은 1872년 6월 미즈사와현의 정부 기관 건물로 설립되었으나, 3년밖에 쓰이지 못했습니다. 미즈사와현은 1871년 12월에 만들어졌으나, 당시 일본의 현 제도는 변동이 심해 5년 후 미즈사와현은 사라졌습니다.

건물은 현 청사로 단기간 사용된 후 다양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1889년에는 토지 및 재산 관련 문제를 취급하는 이시노마키 치안법원 지부로 이용되었습니다. 1989년 건물이 재건되었을 때는 당시 외관을 재현하였습니다. 그 후 미야기현 청사에서 옮겨온 가구가 더해지면서 메이지 시대에 일반적으로 쓰였던 법적, 행정적인 건축 양식이 연출되었습니다.

입구는 완전히 일본식 디자인이며, 인상적인 박공지붕과 격자문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메이지 시대 관공서 건물 특유의 서양식 건물 양식으로 만들어진 1층 목조 건물입니다. 전시 및 기념품, 오래된 사진 등을 통해 이 건물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법정 및 시민이 서류를 제출하는 관료적 사무실 등 몇몇 공간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시민은 인접한 대기실에서 기다렸으며, 서기는 서양식 방에 있는 창 안쪽 높은 곳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